

▶ 달러/원 주간 전망

• 핵심 경제지표 · 빅 이벤트 줄줄이... 환율 단기 분기점 될 수도

서울, 3월6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주요국 경제지표 결과와 국내외 통화정책 수장 발언에 따른 높은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70-1,330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통화정책 경로와 시장 전망과의 괴리가 상당 부분 좁혀진 가운데 이제는 경제지표 결과와 이에 따른 시장 해석이 뒤따르며 그때 그때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가 예상된다.

국내외 금융시장 지각판을 흔들었던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결과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 태세를 높이는 가운데 이에 앞서 나오는 민간 고용 결과 따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단기 시장 흐름을 결정지을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의장은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의회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물가 전망과 연준의 금리 인상폭과 관련한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 따라 시장은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뜨겁게 달아올랐던 중국 리오프닝 기대 재확산 여부도 관건이다. 최근 위안화와의 상관성을 다시 높이기 시작한 원화는 중국 지표 결과 따라 보폭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금주 중 중국 2월 수출입과 물가지표가 대기하고 있다.

한편 주 후반에는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마지막 통화정책회의로 가능성은 낮지만 '깜짝' 정책 발표가 있을지를 두고 시장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 중앙은행(RBA)은 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주는 국내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일정도 많다.

2월 소비자물가, 작년 4분기 GDP(잠정치), 통화신용정책보고서, 1월 국제수지(잠정)를 비롯해 이창용 한 국은행 총재는 생중계 토론회를 가진다. 금통위가 없는 3월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스탠스와 시장 안정 발언이 있을지 주목된다.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3월6일(월)

- ⊙ 한국은행: 2023년 2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통계청: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09: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12:00)

3월7일(화)

- ⊙ 한국은행: 2022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08:00)
- ⊙ 금융위원회: 핀테크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10:00)
- ⊙ 한국은행: 총재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11:00)
- ⊙ 기획재정부: 1차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5:00)

3월8일(수)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08: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제1차 회의 (10:3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주한 미국기업 간담회 (11:45)
- ⊙ 한국은행: 국별 비교를 통한 소비흐름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BOK이슈노트 2023-8) (12:00)
- ⊙ KDI: KDI 경제동향(2023. 3) (12:00)

3월9일(목)

- ⊙ 금융감독원: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10:00)
- ⊙ 한국은행: 2023년 2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3월) (12:00)
- ⊙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BIS 총재회의」참석 (12:00)
- ⊙ 금융위원회: 저금리 대한 프로그램 개편 시행 (12:00)

3월10일(금)

- ⊙ 한국은행: 2023년 1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2023년 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베트남 하노이)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3월06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3월6일	18:30	유로존	센틱스지수	3월		-8.0
3월6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1월	1.0%	-2.7%
3월7일	00:00	미국	내구재주문 수정치 MM	1월		-4.5%
3월7일	00:00	미국	공장주문 MM	1월		1.8%
3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2월		1,250.2B
3월7일		중국	수출 YY	2월		-9.9%
3월7일		중국	수입 YY	2월		-7.5%
3월7일		중국	무역수지 USD	2월		78.00B
3월7일		중국	외환보유고	2월		3.184T
3월8일	00: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MM	1월		-0.4%
3월8일	00:00	미국	도매판매 MM	1월		0.0%
3월8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1월	23.00B	11.56B
3월8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2월		3.1%
3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1월		33.4B
3월8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1월		-0.4
3월8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1월		-0.5
3월8일	19:00	유로존	GDP 수정치 QQ	4분기		0.1%
3월8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3월3일 주간		188.5
3월8일	22:15	미국	ADP 전국고용보고서	2월	168k	106k
3월9일	00:00	미국	JOLTS 구인이직보고서	1월		11.012M
3월9일	08:50	일본	GDP 수정치 QQ 연율	4분기		0.6%
3월9일	10:30	중국	PPI YY	2월		-0.8%
3월9일	10:30	중국	CPI YY	2월		2.1%
3월9일	21:30	미국	챌린저 해고건수	2월		102.943k
3월9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장 청구건수	2월27일 주간		190k

3월10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1월		-1.3%
3월10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YY	2월		9.5%
3월10일	22:30	미국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2월	200k	517k
3월10일	22:30	미국	실업률	2월	3.5%	3.4%
3월10-17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YY	2월		12.6%
3월10-17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2월		4,900.0B
3월10-17일		중국	FDI (YTD)	2월		14.50%
3월11일	04:00	미국	연방예산	2월		-39.00B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3월6일 (월)

- ⊙ 필립 라인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구조적 인플레이션" 관련 Q&A (오후 7시)

3월7일(화)

-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오후 12시30분)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상원 은행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8일 0시)

3월8일(수)

-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 (9일 0시)
- ⊙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발표 (9일 0시)

3월9일(목)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10일까지)

3월10일(금)

- ⊙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 금주 세계 5대 이슈

⊙ 미국 고용지표와 파월의 입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 및 연준의 금리 경로 전망에 큰 영향을 준 뒤라 10일 발표될 2월 고용지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1월에 이어 또 한번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 연준이 더 매파적이 되리라는 우려가 초래될 수 있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0만명 증가했으리라고 추정된다.

한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일과 8일 의회 반기 통화정책 청문회에 출석한다. 파월 의장은 1월 고용지표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왜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3월 회의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25bp 인상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더 큰 폭의 인상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다소 높아졌다. 파월의 발언과 고용지표는 연준의 3월 회의 결과를 점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구로다 BOJ 총재의 마지막 정책회의

지난 10년간 일본은행(BOJ)의 통화완화정책을 지휘해온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이번 주 마지막 통화정책회의를 주재한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투자자들은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했지만, 수 차례의 긴급 처방과 비둘기파로 알려진 우에다 가즈오 차기 총재 지명 등으로 투자자들의 채권시장 공격은 일단 진정됐다.

한편 호주 중앙은행(RBA)은 7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RBA는 지난달 회의에서 추가 긴축을 시사했지만, 이후 경제지표는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지난 분기 경제는 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1월 소비자물가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의 연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 세계의 주목 속에 지난 주말 개막했다. 중국이 최고 6%에 이르는 야심찬 성장률 전망을 내놓으리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예상보다 완만한 수준인 5%로 제시됐다.

리커창 총리는 업무 보고에서 경제 안정 및 소비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용 창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부문의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또 전인대 기간 중 차기 총리 및 중국인민은행 총재 등 수뇌부 인선 확정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채권시장 변동성

금융시장은 혼란 속에 3월을 맞았다. 지난 1월 랠리를 보였던 채권과 주식시장은 2월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우려에 후퇴했다. 연준의 3월 회의를 앞두고 더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

머니마켓은 연준이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긴축 사이클을 이어갈 가능성에 대비해 포지션을 구축

하고 있으나, 연준은 최근의 경제 호조를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 연락처 전망을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미국 국채시장 변동성지수는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3월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 영국 경제의 미래

지난해 4분기 경기침체를 가까스로 면한 영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기업 활동, 소비자 심리, 세수 증가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15개월간 지속해온 긴축 사이클이 이달 중 종료할 것으로 예상됐던 영란은행은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9일로 예정된 경제지표가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국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코로나 팬데믹 이전 경제규모를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영국이 G7 국가 중 유일하게 수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달러/원 월간 전망①)-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두며 美 경제지표 · FOMC 불확실성 주목**

서울, 3월2일 (로이터) 박예나 · 문윤아 기자 -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에 연방준비제도(연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3월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274.5-1,346.0로 파악됐다.

전문가 대다수는 1월 고용지표를 시작으로 연이어 나타난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가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전망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강달러 완화 재료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내 수출은 부진하고,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도 커지는 등 원화 자체 강세 요인도 부족해 달러/원 환율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준 통화정책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월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 결과가 향후 환율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1월 지표에 계절조정 등 노이즈가 있었다는 점도 향후 지표를 계속 주시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연준 최종금리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조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회의와 점도표도 주요 이벤트로 언급됐다.

한편,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과 1,300원대에서의 당국 경계감은 달러/원 환율 상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꼽혔다.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향방에 따른 유로 움직임도 환율 상승세에 제동을 걸 요인으로 지목됐다.

※ **전문가별 코멘트**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범위	
신한은행	김장욱 팀장	1,290	1,360
우리은행	박범석 과장	1,280	1,350
하나은행	고규연 팀장	1,280	1,330
DGB대구은행	이응주 차장	1,275	1,355
IBK기업은행	임기묵 차장	1,270	1,350
KDB산업은행	류홍 대리	1,270	1,350
NH농협은행	배유리 차장	1,270	1,340
SK증권	안영진 연구원	1,280	1,340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300	1,345
NH투자증권	권아민 연구원	1,230	1,340
평균		1,274.5	1,346.0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②)-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두며 美 경제지표 · FOMC 불확실성 주목

서울, 3월2일 (로이터) 박예나 · 문윤아 기자 -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에 연방준비제도(연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3월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274.5-1,346.0로 파악됐다.

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

▲ 김장욱 팀장 (신한은행)

"연준의 긴축 정책이 견고한 상황에서 강달러 완화 여지를 찾기 어렵다. 외환수급 개선이 없는 가운데 지난 1월과 반대로 외인 자본이 환율 상승을 견인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율의 하락 반전은 어려운 국면으로 보인다. 상황 따라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예상 거래범위 1,290-1,360원

▲ 박범석 과장 (우리은행)

"1월 고용지표를 시작으로 연이어 나타나는 경제지표 개선세에 미국 긴축 정책이 뒷받침되며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무역수지 적자 지속과 한미 금리차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 등으로 달러/원도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으로도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상단 추세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환율의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FOMC 관련 발언들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환율 상승 추세는 잠시 쉬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 예상 거래범위 1,280-1,350원

▲ 고규연 팀장(하나은행)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고물가에 따른 달러 강세와 주요국 통화정책 차이를 고려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표 호조와 중국 전인대 개막으로 중국 경제 부양 기대감 고조로 위안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원화 특성상 전달과 같은 강한 상승세는 제한될 것이라 본다. 다만, 여전히 연준의 매파 스탠스로 환율 하단은 강하게 지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월말로 갈수록 배당금 역송금 기대가 분기 말 원화 수요를 흡수할 전망이다."

- 예상 거래범위 1,280-1,330원

▲ 이용주 차장(DGB대구은행)

"작년 내내 괴롭혔던 인플레이 재료가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나올 고용과 물가지표 등 경제지표 결과 따라 시장이 흔들릴 것으로 본다. 미국 2년물 금리 추이를 보더라도 당장 달러 강세를 접을 만한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현 달러/원 환율 레벨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도 부담스럽다. 지표 결과 따라 대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275-1,355원

▲ 임기묵 차장 (IBK기업은행)

"미국 고용, 물가지표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3월 FOMC회의까지는 환율 상승 동력이 있을 듯하나 오히려 FOMC 회의 이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달러지수도 현재 다소 상단이 막히고, 유로의 경우는 긴축 이슈가 남아 달러의 추가 상승을 막아줄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유로 약세를 자극할 새로운 재료가 나오거나 그간 선방했던 미국 증시가 뒤늦게 급락한다면 달러지수 급등에 그 때 달러/원 환율은 다른 영역으로 진입할 수도 있어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270-1,350원

▲ 류흥 대리(KDB산업은행)

"미국 고물가 지속,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달러/원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2월 고용 및 물가지표를 앞둔 연준의 긴축 경로 불확실성에 달러/원 변동성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FOMC 이후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달러/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270-1,350원

▲ 배유리 차장(NH농협은행)

"연준의 완전한 피벗을 확인하기도 전 달러 약세에 대한 선반영이 과도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2월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를 확인하며 달러/원이 급상승했다. 3월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듯하다. 계속되는 수출 부진과 금리차 확대 우려 등 원화 자체 강세 요인이 부족하다. 다만 증시, 위안화 및 엔화 방향성에 따라 하락할 여지가 있으며 달러/원 1,300원대에서 당국 경계심리가 강해지는 점은 환율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 예상 거래범위 1,270-1,340원

▲ 안영진 연구원(SK증권)

"관건은 3월 FOMC에서의 최종금리 가이드스(점도표)다. 현재 6월 5.5%까지 올리고 멈춘다는 것이 연준과 시장의 공통된 컨센서스인 가운데 컨센서스가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 금리와 함께 달러의 추가 상승 여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할 때 달러 강세에 비해 원화 약세는 과도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돼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현재 최종금리 수준 전망이 유지되는 선에서 일단락이 될 경우 환율은 다시 하락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 예상된다."

- 예상 거래범위 1,280-1,340원

▲ 문홍철 파트장(DB금융투자)

"미국의 1월 지표 서프라이즈는 계절조정 및 정부지원에 따른 일회성 요인으로, 동 노이즈 제거시까지 강달러 흐름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따른 강달러 리스크는 상존하며, 더불어 ECB의 통화정책이 덜 긴축적인 피벗이 나타나면 강달러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 다만, 3월에 발표되는 지표부터 일부 노이즈는 제거되면서 강달러 압력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45원

▲ 권아민 연구원(NH투자증권)

"최근 달러/원 환율은 위안화, 달러지수 등과 가장 강하게 연동되고 있다. 환율 레벨 1,300원을 상회하는 수준에서는 당국의 개입도 있었던 만큼 현 레벨에서 추가 상승 속도는 제한될 전망이다. 크게 보면 미국 인플레이션, 긴축에 대한 우려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분기 이후에는 중국 경기회복 가시화 속 미국 외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역시 남아있다. 2분기 이후 위안화의 강세 모멘텀 역시 달러/원 환율의 레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2분기 이후 한국의 수출 증가율 저점 확인, 교역조건 개선 등을 고려하면 연중 달러/원 환율의 하락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 예상 거래범위 1,230-1,340원

• (칼럼)-대한민국 은행에는 미래가 없다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2월27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은행 돈잔치' 헤드라인은 2000년 들어 국내 언론의 단골 메뉴였다.

IMF 사태 당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한 일부 은행이 이자 장사를 통해 번 돈으로 자기 식구들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보도는 여론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에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다 보니 여론은 악화됐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책금리를 급격히 낮췄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함께 통화정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자 대내외 금리가 상승세를 타며 은행 수익 증가세도 가팔라졌다.

이때 정부가 내놓은 게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다. 금융산업을 국내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우 규모가 작고 예대금리차 등에 의존한 단순한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금융시장의 선진화, 금융회사의 국제화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틀을 짜겠다는 구상이었다.

2007년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며 정부의 금융산업 선진화 구상을 현실화할 인프라가 갖춰졌고, 시중 은행들은 앞다퉀 글로벌 IB 전략을 내놓으며 변화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 오락가락하는 컨트롤 타워와 은행의 보신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분위기는 일변했다.

금융시장의 선진화, 금융회사의 국제화 속에 내포된 과도한 위험 추구 성향이 시스템 리스크를 키웠다는 평가 때문이다.

'금융이 미래'라던 정부는 이제 금융위기 과정에서 불거진 손실의 책임 소재 규명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영기 당시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해외파생상품 투자에서 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2008년 당시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기 직전까지 갔던 건 정책당국자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됐다. 당시 산은은 우여곡절 끝에 인수전에서 철수했는데 그해 9월 리먼브러더스는 천문학적 손실을 드러내며 파산 절차를 밟았다. 만약 산은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했다면 글로벌 금융시장 붕괴와 함께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 이어진 금융규제당국의 '안전제일주의'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뚜렷한 기준 없이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은행권 전반의 IB 투자 분위기는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2010년대 들어서도 은행들은 원래 잘하는 이자 장사나 충실히 하라는 분위기가 지속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은행들이 호기롭게 내놓았던 역량 강화 방안들은 되돌려지거나 축소됐고, 은행권

전반에서 대규모 인력 이탈이 이어졌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등극하다 보니 은행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기 더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 정부 눈치보기 급급한 은행들.. '비전이 없다'

그리고 2023년이다. 은행이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300~400%의 성과급을 지급한 데 이어 일부 명예퇴직자에게 10억원까지 지급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 발언을 내놓은 이후 금융당국은 신속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개선 TF'를 발족시키고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감안해 업권내 경쟁을 강화하는 등 은행권 진입 정책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은행의 보수 체계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에 후딱 손질해 내놓을 금융 선진화 방안이 국내은행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보인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자사의 비전을 설정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보해 주체적인 변화를 설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상업은행들이 그동안 경쟁력을 보였던 담보 대출, 투자 자문, 신용카드 등 거의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격렬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이같은 '비전 부재'는 더욱 뼈아플 수밖에 없다.

기술 기업들이 독점적인 플랫폼 영향력을 활용해 고객들에 대한 대출, 결제, 자산 관리 등 모든 은행 서비스를 역설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한국의 은행들은 현 정부의 정책 추진 의도를 파악하는 데 그나마 남은 역량을 상당 부분 소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상충되는 정책 목표와 금융당국의 오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연말 국내은행들에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우리은행에서 한 직원이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문제가 되자 내놓은 조치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아래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금융당국이 은행내 인력 배치까지 이처럼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게 현재 한국의 현실이다.

고급 인력 유치나 인력 전문성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 은행에 이자장사만 하지 말고 실력을 키워 비이자 수익을 늘리라는 모순된 주문을 하는 데도 이유는 있을 것이다.

같은 금융당국이라도 은행 산업을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법은 달라진다. 문제는 이처럼 정책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은행 산업을 당국이 한 방향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오만이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현재의 은행 시스템을 상명하달식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측정이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목표를 조심스럽게 설계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면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시도를 감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은행에는 미래가 없어 보인다.

(편집 박예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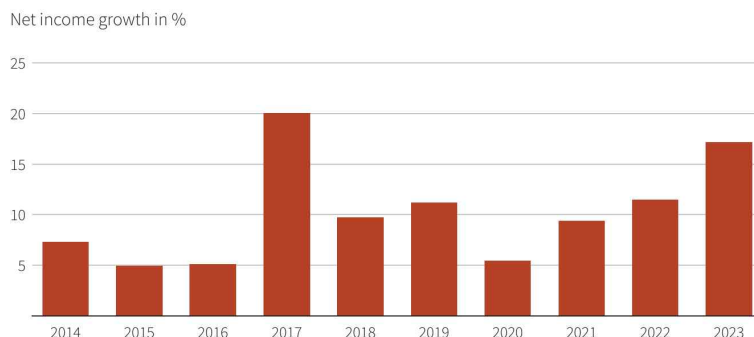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그래프)-올해 中 기업 이익 증가율 전망 상향 조정 - IBES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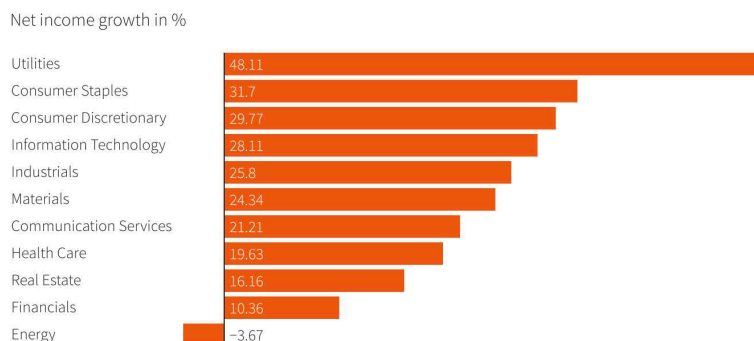
3월03일 (로이터) - 에널리스트들, 2023년 중국 기업 이익 증가율 전망치 15.1%로 연초 14.3%보다 상향 조정 - IBES 자료 (2022년 9.7% 추정)

Net income growth for China based companies



Note: Data based on 1168 companies with market value of over \$1 billion, having comparable data available
Source: Calculations based on Refinitiv data

Breakdown by sector for Chinese companies' net income growth in 2023



Note: Data based on 1168 companies with market value of over \$1 billion, having comparable data available
Source: Calculations based on Refinitiv data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0.25%, 유로화 +0.82%, 엔화 +0.44%, 위안화 역내 +0.62%, 달러지수 -0.67%
- 국내 주가: 코스피 +0.35%, 코스닥 +3.02%
- 미국 주가: 다우존스 +1.75%, 나스닥 +2.58%, S&P500 +1.90%, 러셀2000 +2.00%
- 국내 국고채(레피니티브 호가): 3년 +23.4 bps, 10년 +24.3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1.5 bps
- 미국 국채: 2년 +5.6 bps, 10년 +1.4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89.8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4.40%, 금 선물 +2.44%, 레피니티브/코어커머리티CRB지수 +3.05%